

# 4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봉사의 마음

글 이소영 작가/사진 민영주 조단스튜디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김혜심 약학박사.

※ 김혜심 : 1946년 전북 익산에서 6남2녀 중 셋째이자 장녀로 출생. 이리여고 · 중앙대 약학과 · 중앙대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박사), 원광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 1970년 원불교 정녀 서원, 출가. 소록도병원 약사, 원광대 약학대학 학장, 한국생약학회 부회장, 약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등 역임. 현재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스와질란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법인 대표, 유재라봉사상,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 수상 및 수훈.

1964년, 열여덟 살 소녀는 약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전북 익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안주인으로 6남2녀를 기르면서도 바깥일에 적극적이었던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여성도 제 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며 공부 잘하는 딸들에게 약학대학 진학을 권했다.

웁은 말씀이라 여기고 따랐지만, 직업으로든 학업으로든 자신의 자립과 성취는 예상했어도 병든 이의 삶까지 일으켜 세우려라곤 짐작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흔이 넘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의 오지다. 현지인들에게 ‘마더(어머니)’, ‘꼬꼬(할머니)’로 불리며 질병과 가난에 맞서온 지 어느새 25년이다.

한국에서 출발하면 꼬박 하루가 걸려야 도착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모코카, 거기서 차로 8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에스와티니(Eswatini, 구 스와질란드)의 까풍아. 그곳 사람들이 존경과 애정을 담아 부르는 ‘마더 킴’, ‘꼬꼬 킴’은 ‘교무님’으로 통하기도 한다. 원불교 성직자를 일컫는 직함이라는 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김혜심(74) 박사가 해온 일들을 설명할 마땅한 명칭도 없고 종교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미래를 선물하다

김 박사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구충제와 비타민을 먹여준 사람이고, 감기처럼 흔한 질병으로 여긴 에이즈에 대해 정확히 알려준 사람이다. 청하지 않아도 수풀을 헤치고 찾아와 약을 발라주고, 시시콜콜한 대소사까지 상담해주었다. 까풍아에는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추장이 있고, 라모코카 역시 추장이 이끄는 마을이지만 그들 삶에 가장 가까운 지도자는 김 박사일 것이다. 김 박사는 원불교 교단이 에스와티니와 남아공에 설립한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Future for African Children)의 현지법인 대표다. 까풍아와 라모코카는 손꼽히는 오지이지만 법인이 세운 원광센터의 명성은 두 나라 전 지역에 자자하다. 현지 주요 매스컴에 김 박사가 이끄는 의료봉사단의 무의촌 순회 일정이 보도될 정도다.

법인이 두 지역에 세운 원광센터는 유치원, 보건소, 에이즈 센터, 직업기술교육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2000년 까풍아에 유치원이 개원했을 때는 국왕이 직접 방문해 ‘최고’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라모코카의 ‘방과 후 교실’에선 남아공 태권도 국가대표가 9명이나 배출됐다. 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운 뒤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6명이나 된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시설이나 성과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곳에선 놀랄 만한 일들이었다. 수



김 박사(오른쪽 두 번째)는 소록도병원에서 8년간 약사로 활동했다(위). 아프리카 오지에서 질병과 가난에 맞서온 지 25년, 김 박사는 현지인들에게 ‘마더(엄마)’, ‘꼬꼬(할머니)’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아래).

세식 화장실을 갖춘 것만으로도 최고의 유치원으로 치켜세워질 정도로 보건위생이 열악했고, 직업을 얻을 기회도 구할 의지도 없던 청소년들이 한국 기업이 인정하는 인재가 됐다는 기적 같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김 박사가 까풍아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일이다. 꼬꼬, 꼬꼬 하며 달려드는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에 빠져들어 절로 웃음 짓다가 코에서 기생충이 기어 나오는 걸 보고 기겁했다. 급하게 한





김혜심 박사는 보건소 설립, 에이즈 센터 운영, 식수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오지 빈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에스와티니의 까풍아에서 식수 개발에 성공한 후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국의 친구에게 부탁해 20만 명분의 구충제를 조달했고 50여 학교에 전달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록 약품 상자는 그대로였다. 결국 학교마다 찾아다니며 직접 아이들의 입에 구충제를 넣어주기를 3~4년.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덜 아프고 덜 죽게 됐다는 걸 확인해서일까. 그 후로 약품 상자가 먼지를 뒤집어쓰는 일은 없었다. 2010년에는 에스와티니 정부 주도로 모든 학교에 구충제 배급이 이뤄졌다.

까풍아와 라모코카에서 가난과 질병은 숙명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김 박사가 1995년 아프리카를 처음 찾았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은 춤추고 노래 불렀다. 삶을 긍정해서인가 하면 체념에 가까웠다. 쓰레기가 널려있어도 주울 줄 몰랐고, 지저분한 것을 만지면 손을 씻으라 해도 들은 듯만 둥이였다. 한국에서라면 교육할 필요도 없는 일들과 씨름하다보니 ‘아프리카에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절로 실감됐다.

기성세대가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주목한 대상이 어린이였다. 원광대 약학대 학장 자리를 내려놓고 찾아온 아프리카였지만 그의 처방은 주위 예상과는 달랐다. 김 박사는 만연한 가난과 질병을 치료할 시급하고 근본적인 약제는 교육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유치원이 맨 처음이었고 보건소가 다음이었다. 그런데 유치원에 잘 나오던 아이가 보이지

않아 집에 찾아가면 이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모는 에이즈 환자였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의 부모 사인도 에이즈였다.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려면 부모들의 에이즈도 함께 다루어야 했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는 여전히 천형 같은 질병이다. 특히 에스와티니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통계가 있고, 관련 국제단체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2005년 원광센터가 에이즈 센터를 열었을 때는 제 발로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지원단체 대개가 도심에 밀집해 있는 탓에 까풍아에선 단

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도 센터는 적막했다.

## 타력에서 자력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먼저 문을 연 보건소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와 위장병이나 피부병 같은 수인성 질환을 상담하고 영양 상태를 점검받았다. 그러니 주민들이 건강을 염려하지 않는 까닭은 아니었다. 문제는 무지였고 만성화된 무기력이었다. 에이즈가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병인 줄 알지만 예방과 관리의 가능성은 알지 못했다. 낫지 않을 병이라면 남들 눈에 띄면서까지 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일부다처제에 조흔 풍습까지 있는 마당에 인식마저 그랬으니 에이즈 전염물이며 사망률이 낮춰질 리 없었다.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 못 할 일도 아니었다. 정색하고 가르치려 들 일이 아니었다. ‘홍 많은 사람들에게 흥밋거리를 주자’고 마음을 바꾸었다. 영화도 보여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문화 이벤트를 열었다. 행사 말미 10~15분 동안 에이즈 예방교육을 요령껏 실시했다. 이것이 발전해 까풍아에선 에이즈를 주제로 한 청소년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스스로 찾아와 환자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는 주민이 늘고 있다. 현재 1,500명가량 등록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의 미래에서 비롯된 김 박사의 교육사업은 마을의 현재를 지키는 의료복지와 지역개발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면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가르침을 받은 쪽은 오히려 김 박사였다. 위생이 염려돼 손을 씻으라고만 했지 마실 물조차 귀한 속사정은 알지 못했다. 깨끗한 식수 공급이 절실했다. 에스와티니 국왕에게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냈다. 현지에서 일을 추진할 인력이 없기에 지하수 개발사업 시행에도 뛰어들었다.

어렵사리 중·고등학교 과정에 학비를 지원해준 아이가 졸업 후에도 일을 하지 않기에 삶은 소리를 할 뻔했는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은 따로 있었다. 청년들에게 자동차 정비·전기 배선·목공을 재교육하는 기술훈련센터도 열었다. 가사노동에 짓눌리던 주부들을 불러 모아 재봉기술을 알려주고 교복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게 도와주었더니 ‘행복’하다고 말해온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 자립심을 키운 엄마는 아이의 미래도 그렇게 응원해줄 것이다.

원광센터의 아침은 이들이 함께 외치는 “타력에서 자력으로, 원망에서 감사로”라는 구호로 찌렁찌렁하다. 주민의 입장이 되어 살다보니 처한 현실이 눈에 더 잘 들어왔다. 빈틈없이 바쁜 날들이지만 매주 수요일은 ‘중증 재가환자 방문 치료의 날’로 못박았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지 않아 이동시간도 만만찮고 텅텅대는 승합차엔 간단한 의약품과 영양식밖에 채길 것이 없다. 센터 출동이라고 해봐야 김혜심 박사를 포함한 교무 2명이 전부다. 그래도 거르는 법은 없다. 때로는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김 박사 일행이 오는 길 중간까지 나와서 처치를 받고 가는 이도 있고, 방문 예정에 없던 가정에서 응급환자를 신고 나오기도 한다.

틈틈이 까풍아보다 더 열악한 의료 소외지역으로도 의료봉사를 간다. 현지에 정착한 한인 의료진과 은퇴 후 단기 봉사를 하러 온 미국인 의사까지 합세한 의료봉사단의 활동은 에스와티니 의료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소록도에서 배운 평생의 교훈

원 무렵에 찾아간 아프리카에서 이순(耳順)을 맞았고 고희(古稀)도 넘겼다. 몸이 늙고 지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순리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고도에 적응하느라 얻은 눈 질환과 똑 떨어진 청력, 디스크와 당뇨, 그리고 두 번의 암 수술을 받은 몸이다. 그런데 어찌자고 마음은 여전히 이립(而立)이니, 아프리카를 떠날 수가 없다.

1년에 두세 달, 업무를 처리하거나 급한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와있을 때엔 외려 향수에 젖을 지경이다. 원불교 교무로서 정년은 이미 지났지만, 아프리카 현지법인과 센터의 일을 좀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려고 교단에 퇴임을 연장해달라 간곡히 요청했다. 겨우 받아낸 허락도 올해까지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불교 교단의 ‘아

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활동은 김 박사의 간청으로 시작됐다. 교단을 설득해서 전에 없던 발령지로 부임 받은 일도 처음이 아니다. 서른 무렵, 약대 박사과정 중에 여름방학 두어 달만 의료봉사를 하자고 찾아갔던 소록도에서는 교무이자 약사로서 8년을 지냈다.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이던 2016년엔 ‘소록의 천사’로 알려진 마리엔느, 마가렛 수녀와 더불어 고흥군 명예군민증까지 받았다.

한센병 환자를 마주한 첫날, 물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곳의 한센인들은 무서웠다. 그러나 ‘한번만 더 그들의 얼굴을 보자’고 마음먹고 하룻밤을 지낸 뒤 소록도행 배를 탔다. 다시 마주한 얼굴들은 평생 도를 닦은 이의 그것처럼 맑아 보였다. 편견을 씻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웃음도 보였고, 말을 나누다보니 고향마을 이웃마냥 살가웠다. 머물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소록도 주민들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자립하려 애를 썼다. 자립심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였다. 무관심과 외로움이야말로 한센병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도 알았다.

훗날 김혜심 박사가 까풍아에서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협동농장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소득원을 마련해준 것도 소록도에서의 경험 덕분이다. 한센병이 더 이상 불치와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환도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고 김 박사는 믿는다. 다행히 그 믿음이 옳다 하는 이들의 도움도 꾸준하다. 아산상 의료봉사상 역시 그 같은 격려라고 생각한다. 김 박사가 함께하는 마음들과 더불어 감사의 합장을 올리는 이유다. 🍎



김혜심 박사는 원불교 신자이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원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